

공공기관 2차 이전·산포면 군 비상활주로 폐쇄 촉구

전남도의회 정례회 개최, 건의안 채택하고 민생 챙기기 도정·교육행정 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의, 조례 제정

전남도의회가 2일 정례회를 시작하자마자 민생과 지역발전 관련 건의안을 잇따라 채택해 청와대, 국회, 정부 각 부처에 보내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민준 도의원(나주1·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나주 산포면 공군 비상활주로 폐쇄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의안은 40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재산권 피해와 사고위험을 감수해 온 주민들을 위해 산포비상활주로를 지정 해제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포면에 있는 비상

활주로는 1979년에 산포면을 거치는 국도 1호선 구간에 총연장 2.4km, 폭 45m 규모로 건설됐다. 전신 인근 공군비행장이 적의 폭격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해 마련한 예비항공 작전기지이다.

지난 1999년 우회도로가 들어서면서 도로 기능은 폐지되고 활주로 기능은 아직 유지 중이지만 공군의 비상활주로를 해제해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다. 이민준 의원은 "비상활주로를 들어서지 40년이 넘었지만, 주민들은 전투기가 실제로 이착

륙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며 "과거 산포면 주민들과 공군 참모총장의 면담에서도 공군은 비상활주로를 기능상 문제가 있다는 답변을 한 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비상활주로 주변은 혁신도시시는 물론 광주시와도 가까워 에너지산업을 위한 기업 입주 공간이나 주거 단지 조성에 최적의 입지지만 비상활주로 때문에 개발이 제한되고 있다"며 "정부가 40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재산권 피해를 감수해 온 산포면 주민들의 애환을 풀어 달라"고 주장했다.

최명수 의원(나주2·민주당)은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정부는 수도권 과밀문제와 지역쇠퇴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12개 지역에 혁신도시를 건설

하고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는 4개 분야 16개 기관이 이전했다"며 "정부의 인위적인 분산조치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기대치와는 달리 수도권, 충청권 인구 집중 현상이 재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 의원은 수도권 및 충청권 인구 집중 현상에 대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 때 지역별 격차를 고려하지 않는 공공기관 이전, 수도권과 충청권에 집중된 연구기관으로 인한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미흡, 기업 가적 혁신 생태계 조성이 이뤄지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계획을 조속히 세워 지역 간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춘욱(순천1·민주당) 의원은 농업부문 외국인노동자 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은 결의안에서 "농촌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농업부문 인력난이 심화하고 있다. 각종 대책이 추진 중이지만 농업 현장에서는 내국인을 구할 수 없다 보니 비공식적인 경로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 파견근로 사업을 조속히 확대하고, 농업의 특성을 반영해 정부 주도의 농업부문 외국인노동자 종합수급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정례회에 도입한 전남도의회는 12월 15일 까지 회기를 진행하며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의, 각종 민생 관련 조례안 제정 등을 할 예정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인피니트뮤지움 건립 업무협약 김영록 전남지사가 2일 도청 집무실에서 영혼의 건축가 마리오 보타(Mario Botta), 세계적인 조각가 박은선, 박우량 신안군수(왼쪽부터 오른쪽으로)와 신안 인피니트 뮤지움(Infinito museum)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인피니트뮤지움은 150억 원을 투입해 신안군 자은도 둔장해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완공할 예정이다.

광주 문화콘텐츠 기업, 60억 투자유치 성공

캠프파이어애니웍스

광주 지역 문화콘텐츠 기업이 6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의 지원 사업에 참여한 문화콘텐츠 기업 캠프파이어애니웍스가 중국 텐센트 비디오·라이브판·EBS 등으로부터 6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캠프파이어애니웍스는 텐센트

트비디오·EBS를 통해 애니메이션 '레인보우 버블 잼'을 내년 9월 국내·외 동시 방영한다.

캠프파이어애니웍스는 2017년 창업했으며 시의 지원 사업에 2019~2020년 참여했다. 시는 애니메이션·웹툰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문화콘텐츠 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173개 작품에 140억원을 지원해 300억원 상당의 매출 성과를 냈다. 특히 2011년 지원작인 아이스

크립스튜디오의 '두다다쿵'은 시즌 3의 공동 제작과 투자 계약까지 이뤄졌다. 2016년 지원작인 몬스터스튜디오의 '브래드비탈소'도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로 배급됐다.

김준영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앞으로 문화콘텐츠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문화콘텐츠 산업의 발전과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녹색에너지연구원-中 저장성, 교류협약 체결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이 최근 제23회 한중포럼에서 중국 저장성에너지그룹기술연구원과 녹색에너지 분야의 연구개발(R&D) 협력을 위한 국제교류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녹색에너지 분야의 연구, 개발, 혁신에 협력키로 했다. 또한 태양광·풍

력·수력 발전시스템, 에너지저장 장치 및 에너지 관리, 마이크로그리드 및 전력시스템, 육상 및 해상풍력 발전시스템, 수력발전 및 에너지 저장, 신재생에너지 인증 및 국제표준 등을 공동 연구한다.

녹색에너지연구원은 이번 중국 저장성에너지그룹기술연구원과의 협약으로 녹색에너지 분야 정보 교환과 연구개발 및 상호협력 등 활성화로 관련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동식 녹색에너지연구원장은 "녹색에너지 분야 전문 연구기관 간 업무협약은 관련 기술 및 산업 발전에 미치는 시너지 효과는 상당하리"라며 "적극적인 상호 교류협력 등으로 모범적인 국제 교류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단계적 일상회복...남도한바퀴 8일 재개

함평 국향대전 기간 매일 운행 금·토 KTX연계 순환형버스도

전남도가 코로나19 방역지침 등으로 지난 7월 잠정 중단했던 전남 관광지 순환버스 남도한바퀴 운영을 오는 8일부터 재개한다. 이번 남도한바퀴 코스는 전남 곳곳의 안심하고 여행하기 좋은 관광지 위주로 구성했다.

대표적 안심관광지인 순천만국가정원, 여수 장도, 신안 퍼플교, 구례 산수유시목지, 광양 전남도립미술관, 보성 차밭, 장흥 편백숲우드랜드, 국립나주박물관 등을 경유한다.

함평 대한민국향대전이라는 함평엑스포공원은 축제 기간을 맞아 8일부터 21일까지 매일 1회 방문한다.

매일 둘째 주 수요일에는 관광약자 등을 위해 장애물이 없는 보성차밭 순천지역 상품을 휠체어리프트버스로 운영한다.

또 수도권 관광객이 자유롭게 지역에 체류관광하도록 19일부터 매주 금·토요일에 KTX와 연계한 순환형버스도 운행한다.

순환형 남도한바퀴는 금요일 아침 용산역을 출발해 KTX를 타고 나주역에서 내려 남도한바퀴를 타고 나주, 장흥, 강진, 완도, 영암, 해남, 진도 중

원하는 지역에 1박 2일 자유 여행을 하도록 구성했다.

이 순환형 상품은 용산-서울-청량리-영등포역, 수원-천안아산-익산-광주송정역 전국 8개 여행센터와 해당 지자체가 상호 협력해 고객 유치 및 홍보마케팅 등을 펼쳐 운영하는 관광산업의 상생협력 모델이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차량 탑승인원은 20명 이내로 제한하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또한 차량 탑승 시 명단 작성, 체온 측정, 손 소독을 하고 차량은 운행 전후 소독 및 환기를 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운영한다. 남도한바퀴 예약은 누리집(<http://citytour.jeonnam.go.kr>), 금호고속 남도한바퀴 콜센터(062-360-8502)를 이용하면 되고 전화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운영 재개와 함께 남도한바퀴 운영 활성화와 탑승객 등을 위한 3회 이상 단골고객 감사이벤트, 깜짝 행운의 선물 증정 등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했다.

김영선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답답한 마음을 해소하도록 상품을 다채롭게 기획했다"며 "남도한바퀴를 타고 전남 곳곳의 숨은 매력이 폭 빠져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공유자전거, 동천동·광천동에서도 탄다

광주 공유자전거 '타랑개'가 기존 상무지구에서 동천동, 광천동까지 운영 범위를 넓혔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1일부터 동천동, 광천동에 자전거 150대를 추가 배치해 서비스 지역을 확대했다. 광주시는 상무지구 정거장 52개 중 이용률이 저조한 19개 정거장을 임시 폐쇄하고, 동천동과 광천동에 18개 정거장을 설치했다. 15세 이상 누구나 앱, 홈페이지에서 회원으로 가입하면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연중무휴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타랑개' 서비스 조정과 함께 회원 대상 이

벤트도 실시한다. 기존 회원은 탑승권 기간이 1달 연장되고, 11월 중 신규 가입 회원은 가입일로부터 1달간 무료 사용 혜택이 제공된다. 다만 원활한 자전거 공유를 위해 한 자전거당 대여가능 시간은 최장 90분이며, 당일 대여 횟수에 제한이 없어 무제한 환승이 가능하다. 무료탑승 혜택이 종료되면 1일권(1000원), 7일권(2500원), 1개월권(5000원), 6개월권(2만원), 1년권(3만원)까지 다양한 이용권 구매가 가능하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장흥향우님을 위한 특별한 프랜차이즈 창업

대한민국No1, CEO대상, 우수프랜차이즈 선정, 브랜드대상 수상

김 순 태 이사장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창업성공 어렵지요?
창업16년차 꾸준한 성장을 하고있는
곽두리쪽갈비 전문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정남진 장흥향우님을 위한 특별한 창업을 제안드립니다.

본사 노마진 최저창업비용!
장흥출신 이사장이 직접 컨설팅!

1600-2867

www.kdrcoop.co.kr

곽두리

SINCE 2008

쪽갈비